



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보실에서 고문 폭행 등으로 숨진 박종철의 죽음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.

- 사진 박용수

철아
살아서 보지 못한 것 살아서 얻지 못한 것
인간, 자유, 해방
죽어서 꿈꾸어 기다릴 너를 생각하며
찢어진 가슴으로 네게 약속한다
거짓으로 점철된 이 땅
너의 죽음마저 거짓으로 묻히게 할 수 없다
그리고 말하리라
빼앗긴 너를 으스러지게 껴안으며 일어서서 말하리라
오늘의 분노 오늘의 증오를 모아
이 땅의 착취
끝날 줄 모르는 억압
숨쉬는 것조차 틀어막는 모순덩어리들
그 모든 찌꺼기들을
이제는 끝내주리라
이제는 끝장내리라
철아
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동지여
마침내 그날
우리 모두 해방총을 추게 될 그날
척박한 이 땅 마른 줄기에서 피어나는
눈물뿐인 이 나라의 꽃이 되어라

- 헌시 <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> 중에서